故 앙드레 김 극락왕생 발원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2일 별세한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빈소를 조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지난 13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스님들은 앙드레 김의 영정에 차례로 헌화한 뒤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유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국이 배출한 첫 패션 디자이너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앙드레 김은 어머니 때부터 서울 진관사 신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 때마다 직접 진관사를 찾아 등을 켜던 독실한 불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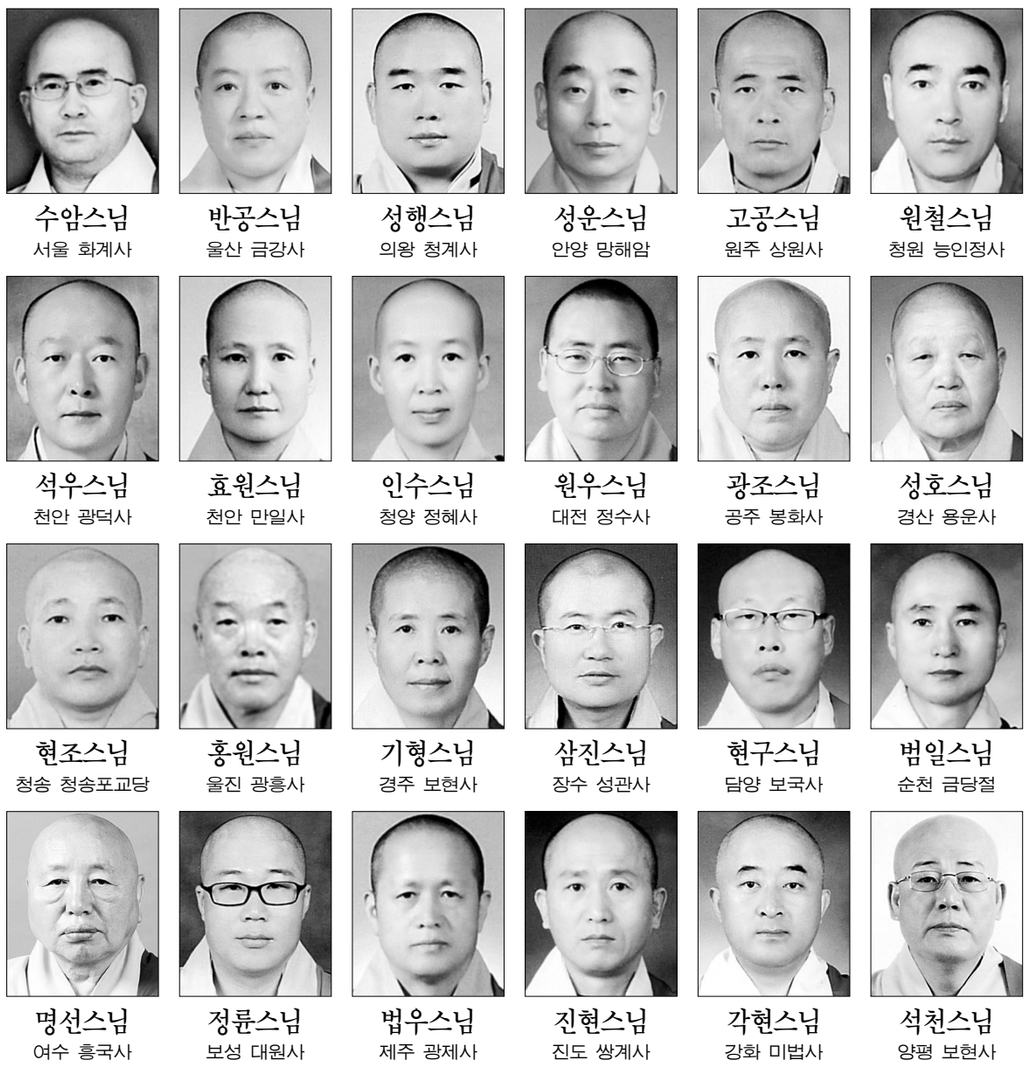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포교원장 혜총스님이 13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염불봉사단 염불봉사

이어 조계종 염불자원봉사단(단장 대오스님)은 14일 고(故) 앙드레김 불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염불자원봉사단 지도법사 무관스님과 단원 30여 명은 빈소에서 20여 분에 걸쳐 '영가시어'와 〈반야심경〉을 독송한 뒤 조가인 '고운님 잘 가소서'와 '열반가'를 합창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장영섭 · 박인탁 기자

본·말사 주지인사

8월11일 종무회의 결과



수암스님 서울 화계사	반공스님 울산 금강사	성행스님 의왕 청계사	성운스님 안양 망해암	고공스님 원주 상원사	원철스님 청원 능인정사
석우스님 천안 광덕사	효원스님 천안 만일사	인수스님 청양 정혜사	원우스님 대전 정수사	광조스님 공주 봉화사	성호스님 경산 용운사
현조스님 청송 청송포교당	홍원스님 울진 광흥사	기형스님 경주 보현사	삼진스님 장수 성관사	현구스님 담양 보국사	범일스님 순천 금당절
명선스님 여수 흥국사	정륜스님 보성 대원사	법우스님 제주 광제사	진현스님 진도 쌍계사	각현스님 강화 미법사	석천스님 양평 보현사

■ 11대 핵심과제 - 25대 주요과제, 어떻게 진행되나

종단등록 100만-핵심 10만 양성 목표

종단 4개년 발전계획 11대 핵심과제 가운데 '신도교육과 조직화'는 불교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신도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신도들의 역량을 조직화해 조계종도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종단관을 갖춘 불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종단등록 신도 100만, 핵심신도 10만 양성'을 목표로 △신도등록 확대와 멤버십체계 정착 △단계별 신도교육 재정비 및 신행체계 전면시행 △종단등록 신도단체 재정비 및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신도교육과 조직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입교 및 신도 등록부터 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지도자 교육 등 체계적으로 신도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멤버십 신도등록을 확대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포교원의 멤버십 신도증 10만매 발급 목표는 약 40% 정도 달성된 상황이다. 현재 종단 등록 신도는 약 42만 명으로, 지난 6월까지 4만 명의 신도들이 새롭게 멤버십 신도증을 발급받았다.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종단과 재적사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신도들의 인식과 멤버십 신도증에 대한 인지도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포교원은 종단 신도등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신도증을 발급받은 신도들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멤버십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사찰 130여 곳을 비롯해 250여 곳의 멤버십 가맹점을 확보한 상황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구신도회 구성을 통한 신도 조직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창립한 직할교구신도회를 포함해 현재 구성된 교구신도회는 총 10곳(군종특별교구 포함). 포교원은 종헌·종법에 입각한 교구신도회 구성을 위해 안내 메뉴얼을 보급하고 있으며, 전국 교구에서 교구신도회가 설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구본사별 협조 요청과 행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신도등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조계종 신도증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개그맨 이수근 씨, 산악인 엄홍길 씨를 신도등록 홍보대사에 위촉한 데 이어, 향후 체육인 불자 등 각 분야별로 홍보대사 위촉을 확대해 신도등록 홍보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며, TV 영상 광고를 통한 홍보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멤버십 가맹점과 불자들의 사업장을 안내하는 전화번호부 형식인 가이드북을 제작해 오는 11월 중 초판을 발행할 예정이다.

정유탁 포교원 신도팀장은 "교육체계 개선과 신도등록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신도교육 및 신도등록 관계법 개정안이 종회에서 계류된 상태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핵심과제 ② 신도교육과 조직화

신도혜택 확대…멤버십 체계구축 '주력'

사업 활성화 위한 관계법령 개정 '과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최근 국·팀장 워크숍을 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천명한 11대 핵심과제와 25대 주요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전체 종무원 조회를 열어 올 하반기 종단 운영방침을 설명하고 종무원들의 정진과 분발을 주문했다. 이에 본지는 핵심주요과제의 상반기 성과에 근거한 하반기 계획을 미리 살펴 종도들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마련했다.

주요과제

해외특별교구 설립

총무원장 스님 미국 방문 주목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실현할 해외특별교구 설립. 종단 차원의 관리체계를 두어 해외 한국사찰의 포교를 활성화하고, 국제포교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원력이다. 현재 해외운영사찰은 약 140곳이나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은 35곳에 불과하다. 미등록 사찰들은 종단의 지원이 어려운 데다 종단의 종지종풍에 합당한 포교를 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 조계종이라는 정체성과 조계종도라는 소속감을 북돋울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2010년 성과목표는 해외특별교구 조직편제와 설립방안 도출이다. 주무부서인 총무원 총무부는 상반기 해외운영사찰 및 외국인 스님 현황 파악을 마쳤다.

무엇보다 해외특별교구법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다. 하반기에는 해외포교의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한다. 입법예고 및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한 법안 수립에도 매진한다. 무엇보다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미국 방문이 주목된다. 총무원장 스님은 미국 동부(뉴욕) 및 서부(LA) 지역을 순회하며 현지 한국사찰들의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 이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10·27 법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상 강화' 주력

10·27 법난 30주년을 앞두고 민관 합동기구인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와의 보다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법난 피해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취지다. 우선 현재 스님을 비롯한 개인으로 한정돼 있는 피해조사 범위를 전체 사찰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의위에 따르면 법난 당시 1929명의 불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전국 5731곳의 사찰이 침탈의 대상이 됐다. 인적피해 뿐만아니라 물적피해도 막심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울러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있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방부로 되어 있는 주무부서 역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난이 엄연히 군(軍)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인데 군이 실무를 관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는 것이다. 대(對)종교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심의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 성역화 불사와 연계해 역사교육관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10월27일로 예정된 법난 30주년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한 기획단도 구성했다.

혜거스님께 듣는 원각경(圓覺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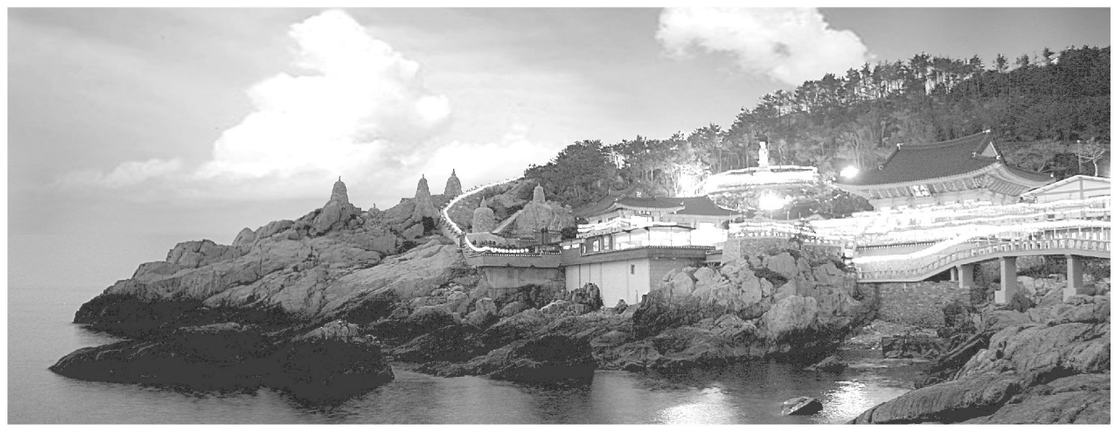
"원각경은
내 마음이 원각(圓覺)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일 자 : 2010년 9월 2일(목) 매주 목요일(14주)
▮시 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공생선원(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 삼환프라자 7층)
▮문 의 : 02)900-2448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무료
▶주차장 완비
▶방생물 주문배달

해동용궁사
www.yongkungsa.or.kr
전화 (051) 722-7744, 7755